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라
(잠언 16:3)

발행처 :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 신성종 편집인 : 우기전 편집국장 : 이종국

여름철 맞아 해외 단기선교훈련 활발

대학·청년부가 주축, 선교연구원도

여름철을 맞으며 해외 단기선교훈련과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선교인식을 높이기 위한 해외여행들이 늘어나고 있다. 교회도 1993년도에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서만수 선교사 시무)에서의 여름어린이 성경학교를 도와주고 오면서부터, 또 한일청소년지도자 대회로 일본을 다녀온 후부터 해외로의 선교적 인식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것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과 같이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것 이상의 교육과 훈련이 없기에 한번 다녀온 사람들 모두가 다 '좋았다, 유익했다, 은혜로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에 다녀왔고, 또한 태국 국경지방에서의 단기선교훈련은 그야말로 선교훈련으로 충분한 것이었다.

금년에도 청년1부와 대학부가 중심이 되어 해외단기선교훈련을 계획하고 있고 선교훈련원에서도 단기선교훈련을 계획중이다.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경우 금년이 3년째로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를 도와주고 오지탐방 및 그곳에서 선교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7월 24일 출국하여 8월 3일에 귀국하는 10박 11일의 여정으로 대학부와 청년부 회원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솔자는 청년1부 지도 김동석 목사, 새가족위원회 부지도 한영준 전도사이다.

· 일본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6박 7일로 일본 동경시의 동경제일교회(김해규 목사 시무)에 숙소를 정하고 동경 시내 노방전도 및 캠퍼스 전도를 펼치며 선교현장을 직접 느낄 것이다. 인솔자는 대학부 부지도 이준경 전도사, 대학부 부감 안숙현 집사 외에 대원은 대학부 회원 9명

· 중국

학원복음화협의회가 주최하는 서울

지역 각 선교단체와 교회 대학·청년부 리더 훈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대학부가 참여하는 행사로 8월 10일~17일까지 7박 8일간 북경(북경대학, 만리장성) - 연길 - 백두산으로 이어지는 역사기행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중국의 실정으로 노방이나 캠퍼스에서 전도를 할 수는 없지만 현지의 선교환경을 이해하는데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대학부 지도 장봉생 목사가 인솔하고 8명의 대학부 회원이 참여한다.

· 필리핀

선교연구원에서 선교연구원 훈련생 및 수료자를 대상으로 단기선교훈련 및 세미나를 겸한 프로그램. 필리핀에서

P.T.S. 신학교 탐방, 도시빈민지역 전도, 산지족 교회에서 예배 및 전도, 선교에 관한 세미나 등으로 현지에서 선교를 배우고 실제로 선교활동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인솔에 선교연구원 원감 하대선 장로와 장우천 목사 외에 19명이 참여한다. 8월 15~23일까지 8박 9일간이다.

전체 경비에서 각 개인당 30만원씩 교회에서 보조하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다. 이번 훈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선교와 선교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따른 선교사 후원, 지원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때 진정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의미가 살아날 것이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에

우리 교회 성도 5명이 어려움 겪어

지난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으로 우리 교회 교우의 피해도 있었다.

제4-2교구 극동지역의 김창현 성도, 윤원노 권사의 딸인 김현경 성도(28세)가 둔부타박상으로 안세병원에 입원 가료중이고, 제4-2교구 양재 2구역의 김진순 성도(40세)가 두부찰과상을 입었으나 심하지 않고 곧 퇴원한 상태이다.

또한 제12-2교구 삼호아파트 구역의 황선미 권찰(삼풍백화점 주부사원)과 김세영 성도의 부인인 문광숙 성도(41세)가 무너진 A관 2층에 있다가 변을 당해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지난 4일과 6일에 각각 장례를 치루었다. 제4-1교구 방배6구역의 이용근 성도의 부인인 홍진선 성도(29세, 삼풍직원)도 붕괴현장에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모두가 함께 가슴아파하고 안타까워한 이번 사건 속에 우리 주위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며 진심으로 위로하고 함께하는 일들이 넘쳐야 하겠다.

3일간 500명분의 식사를 제공하며 그들의 수고에 동참하기도 했다.

또한 여전도회에서는 서울 교대와 각 병원에서 출어져 있는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들을 상대로 그들을 위로하고 상담하며 아픔을 같이하는 일들을 펼치고 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기에 자기 자신을 잘 추수하지 못한 가운데 있을뿐 아니라 이런 기회를 틈타 사기꾼들이 날뛰고 있어 여전도회원들의 이런 상담과 위로 활동은 여러면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교역자 인사

교회는 김창수 목사 사임에 따라 장봉생 목사(대학부 지도)로 선교위원회 지도를 겸하도록 했고, 정광욱 목사(제10교구 지도)로 제1교육위원회 지도를 겸하도록 했다.

구호품 전달 및 위로

여전도회에서 실종자가족 및 유가족에게 위로와 상담역 봉사

교회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현장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와 구조대원들에게 지난 6월 30일 라면과 음료수 등 1800상자 분량의 구호품을 전달하며 그들의 수고를 위로하며 동참했다.

2차 지원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영양섭취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치캔 1000개와 7월 6-8일까지

길림성기독교신학원 기공식

7월 11일(화), 현지에서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해온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의 교사 건립을 위한 기공식이 7월 11일(화) 오전 10시 중국 길림성신학원 건축부지에서 행해진다.

교회에서는 신성종 목사, 이진숙 사모를 위시해 100여명이 이 기공식에 참석하게 된다. 이 참가단은 기공식에 참가한 후 7월 17일(월) 북경관광, 백두산 등정 등의 행사를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

충현 선교연구원

95년 하반기 새 훈련과정 세워 개강

본교회 선교연구원은 세계선교에 대해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는 성도들, 특히 앞으로 해외에서 수년 이상 선교에 전적으로 헌신하려는 본교회 성도, 혹은 직업을 가지고 해외체류하거나 해외로 이주해 살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선교의 역군들을 발굴, 훈련하여 평신도선교사, 전문인선교사, 청소년 선교지도자와 선교후원자로 양성, 배출함으로 21세기를 바라보는 교회의 광역세계선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

6월 11일부터 개강된 하반기 선교훈련

· 교육장소 : 베다니홀

· 교육시간 : 매 주일오후

2:30-3:00 찬양과 교육준비

3:00-3:30 선교영어(52주 선교영어훈련시간 / 강사 : 장우천 목사)

3:30-4:30 본 강의 (단, 강의 매 단위 사이에 영성훈련)

4:30-4:50 공지사항 및 반별모임

· 강의계획표 :

강의 일자	강사 직책 및 경력	강의 제목
6/11, 18	조국회 선교사 MTI 강사, 필리핀 선교 박형용 목사 합신 교수	내적치유를 통한 공동체선교 사역 사도행전의 선교적 흐름
6/25, 7/2	김학유 목사 OPEN DOORS 한국총무	베트남의 지하교회
7/9, 16, 23, 30	중국조선족 사역	
8/6, 13, 20, 27	김순태 목사 선교사, MTI 원감	선교 신학
9/3, 10, 17, 24	정홍호 목사 GMTC 교수	선교상황과 신학
10/1, 8, 15, 22, 29	홍중애 선교사 CCMTI 훈련부장	타문화권 커뮤니케이션
11/5, 12, 19, 26	홍성건 목사 예수전도단 한국대표	선교와 선교사(섬김과 다스림)
12/3, 10	한정국 목사 OMF 한국총무	미전도종족에 대하여
12/17, 24, 31	최바울 선교사 INTERCOOP 대표	미전도종족과 전문인선교

●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보면서 ●

부실공사, 부실교회, 부실인간



우리의 '하면 된다는 철학'이 거듭나면 정말 우리는 잘 할 수 있다.
'부정도 하면 된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선진대열에 우뚝설 수 있다고 믿는다.

신성종
(목사, 당회장)

삼 풍백화점의 붕괴는 또 한번 우리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이것도 몇달이 안되어 지난 것들과 마찬가지로 또 잊혀질 것이고, 그 후에는 또 다른 이름의 붕괴가 있달아 있을 것을 생각하면 외국언론의 말대로 정말 우리가 부실공화국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마저 든다. 부지불식간에 아연실색할 엄청난 참사가 우리에게 닥치자 모두들 입을 모아 이번 일을 나하고는 관계없는 어느 특정인의 잘못처럼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참으로 이번 참사는 나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근본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근본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실 이번 붕괴가 몇번째인가? 그동안에도 크고 작은 수많은 붕괴가 있었고 그때마다 그것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고 난리들이었지만 다 그때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곧 잊어버려곤 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일과성으로 끝날 것을 생각하면 아찔할 뿐이다.

그러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필자는 크게 우리의 네 가지 철학 때문이라고 본다.

첫째로 우리의 '빨리빨리 철학'의 문제이다.

동남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 여행을 가보면 조금씩은 한국말을 다 한다. 그만큼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올라갔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래야 최고(?)의 고객인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이 하는 말 가운데 '싸요, 진짜예요. 빨리빨리 사세요'라는 말은 바로 우리에게 대한 그들의 첫인상이다. 물건을 살 때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순간의 판단을 가지고 좀 싸다 싶으면 기분 따라 즉석에서 사는 것이다. 그것도 싸 싸이를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비단 물건을 살 때만이 아니고 은행에서나 병원에서나 버스를 탈 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줄을 잘 설 줄 모른다. 물론 처음에는 잘 선 것 같은데 일단 버스가 오면 언제 줄이 있었는지 와- 하고 물러가 죽기나기로 먼저 올라타려 애쓰기 때문에 줄을 선 것이 소용이 없다. 그러니 차를 기다리다가는 언제 탈지도 모르고 결국 손해를 본다. 질서는 줄을 설 줄 아는 데서 온다. 민

주주의란 줄을 설 줄 아는 것이다. 줄만 설 줄 알면 사실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무엇이냐 빨리 하려고 드니까 급행료를 내가면서 하게 되고 여기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운전을 하다보면 가끔 접촉사고나 자동차 추돌사고 같은 것이 있다. 뒤에 있는 차들이 기다릴 줄 모른다. 뺑뺑거리면서 폰을 누르고 너도나도 틈새를 찾아 옆으로 가다 보니 서로 엉켜서 결국은 엉킨 차선을 푸는데 더 많은 시간을 뺏

인정받고, 출세하고, 돈을 벌고, 성공하는 사회가 돼버린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질병을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금까지 아직도 고치지 못하고 여기저기 깊숙히 남아있다는데 있다.

세번째 우리의 문제는 '한번 죽지 두 번 죽나의 철학', 즉 '겉없는 데' 있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는 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성장이 거품 위에 설립된 것은 아닌지 두렵다.
언제인가 펄박의 바람이 불 때 이번 삼풍백화점처럼
순간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장담을 할 수 있는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는 교회라면
사실 부실교회라고밖에 할 수 없다.
부실교회는 부실교인들을 양산해 되는 것이다.
그동안 부모를 죽인 사람들이 다 교인들이었다는 것이
이것을 증명해준다.

기게 된다. 여러 해 전 비엔나에 가는 길에 세 시간 동안이나 차가 서있는 적이 있었다. 앞에 추돌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폰을 울리지 않았고, 옆으로 빠져 먼저 가려고 하지도 않았다. 질서를 지키는 것이 유익하고 빠르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이 언제나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줄을 서지 않고 새치기를 하거나 급행료를 내고 먼저 가거나 한다.

두번째 우리의 문제는 '대강대강 해 철학'이다.

군사독재 때 일이었다. 모 대통령이 시찰을 가게 되자 다른데 있는 나무들을 뽑아서 급하게 심었다. 나중에는 시간이 없으니 나무를 베어다가 꽂았다. 심지어 초록색의 페인트를 둘라 흙 위에 뿌려서 파랗게 보이게 했다. 국민들에게는 다 알려져 빈축을 샀지만 그러나 그 대통령만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을 받은 것이다. 대강대강 한 것이 성공한 것이다. 이 일을 추진한 사람들은 빨리 진급을 했고 성공했다. 대강대강 해야 빨리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추진력이 있다고

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한번 죽으면 영원히 죽는다는 것이다. 인생은 일회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인생이란 실험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네번째 우리의 문제는 잘못 변질된 '하면 된다는 철학'에 있다.

고 박정희대통령의 이 철학은 보리고개를 극복하는 힘이 되었고, 새마을운동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이 철학은 '부정도 하면 된다는 철학'으로 변질되어 그 자신이 유신체제를 이룩하였다가 결국 이번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지고만 것이다.

그러나 오늘 필자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연결고리 때문이다. 이번 부실공사를 한 사람은 다름아닌 기독교 유지였다. 기독교의 모학원을 인수할 정도로 교육에 관심이 많은 지도자였다. 그런데 그가 구속되자 먼저 한 말이 '내 재산 안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었다. 그래서 뻔뻔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입을 모아 그를 규탄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그가 바로 나의 얼굴이요 우리의 얼굴이라는 점이다. 한국 교회가 만들어낸 모델이 결국 부실인

간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우리 교인들이 부실인간이란 점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마도 그것은 한국전쟁 이후 무너진 터전 위에 빨리 성공하려는 '빨리빨리 철학'이 가져온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그것은 오늘의 번영을 가져왔다. 당분간은 성공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혹 어떤 사람들은 이번 붕괴사고와 교회가 무슨 관계가 있는냐고 할지 모른다. 외형상으로 보면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서로 연관이 있다. 왜냐하면 삼풍백화점의 주인이 바로 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 교회가 만들어낸 이상적 인간이었던 것이다. 사실 지금 교회도 부실교회가 많다. 거품적으로 솟아는 많을지 모르지만 이번 지방4대선거를 보면 신앙과 선거는 별개의 것이란데 놀랐다. 신앙이 하나의 장식품이 된 것이다. 목에 십자가를 걸고 다닌다고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듯이 장식품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과연 교인인가?

지금 세계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성장이 거품 위에 설립된 것은 아닌지 두렵다. 언제인가 펄박의 바람이 불 때 이번 삼풍백화점처럼 순간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장담을 할 수 있는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는 교회라면 사실 부실교회라고밖에 할 수 없다. 부실교회는 부실교인들을 양산해 되는 것이다. 그동안 부모를 죽인 사람들이 다 교인들이었다는 것이 이것을 증명해준다.

아, 과연 한국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나? 지금이라도 내실을 기하고, 교회 교육에 중점을 두어 참으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천국일꾼을 키워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교육이전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시작부터 바로 되어야 한다. 이번 삼풍백화점 구조활동에 8천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것은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주는 한줄기 빛이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부끄러운 면도 없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은 한다면 하는 국민이란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의 '하면 된다는 철학'이 거듭나면 정말 우리는 잘 할 수 있다. '부정도 하면 된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선진대열에 우뚝설 수 있다고 믿는다.

◀ 대학부 전도수련회를 마치고 ▶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최지연
(대학부 회원)

이번 전도수련회는 대학부 역사 28년동안 우리에게 필요로했던 수련회였다. 여태껏 내적 양육과 섬김, 교회로 모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이제는 우리가 책임질 때입니다'란 구호아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다.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발걸음을 요구하는 이 세대에 21세기를 향한 그릇이 되기 위해 우린 나섰다.

대학부에서 매일 모이는 열린기도회로 계속 여름사역과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왔다. 세계선교와 민족복음화를 위해 기도드리면서 우리가 느낀 것은 이제 젊은이들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농촌의 농번기에 왕성한 젊은이들이 다만 5일을 도우면 때를 맞추어 농작물을 내놓을 수 있었고 어김없이 고맙다는 어른들의 편지를 받았다. 또 농촌의 개척교회로 여름성경학교를 도와주러 내려가면 우리들이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감사하며 복음의 오지와 개척교회를 위해 기도드리게 되었다. 또 일, 이년 우리가 내려가며 익숙해질 때마다 축호전도와 지역복음화를 도울 수 있는 전도집회 등을 준비하고 나갔다.

이번 전도수련회를 준비할 때 우리는 마가복음 9장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로 먼저 준비했다. 마산, 창원, 진해 세 지역의 낮은 복음화와 강한 불교권, 그리고 그 지역에 허다한 거짓 중거자들의 세력과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다. 4영리를 암송하고 약 70여

개의 팀이 20조로 짜여진 뒤 각 조는 조별 전도전략을 세우기에 여념이 없었다. 찬양연습과 전도훈련, 거리에서 보여줄 마임과 하나님의 구속사를 드라마로 꾸미고 결신자들에게 나누어줄 풍선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모두들 열심이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와 열심을 바라보며 서로 격려하였다.

300명 이상이 움직이고 7시간 정도가 걸리는 장거리여행 중에 어떤 사고가 생길지도 모르고 장마철과 겹쳐서 날씨로 인해 전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지도 모르기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은 오직 기도였다. 성령의 역사와 그 지역에 뿌려질 복음의 씨앗을 위한 기도로 담대히 준비하였다.

우리에게는 유리한 조건도 많았다. 그 지역의 낮은 복음화와 경남지역 사람들의 한번 믿으면 확실한 믿음을 갖는다는 특징들…… 또 항구도시여서 미신과 불교세가 강한 그 지역에 우리의 대장되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에 알맞기 때문이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복음의 선진들의 발자취가 있었고 6.25동안 때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가 끊이지 않던 곳이고 몽고를 비롯한 갖은 외세의 침입으로 배타적인 사람들의 마음에 꼭 복음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27일 오후에 출발하여 마산 문창교회에서 개회예배를 드리고 현지 동역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서울에서 훈련된 전도단이 온다고 하니 현지 교회에

서는 서로 이 기회를 부흥의 기회로 삼고자 저마다 열심이었다. 그 이후부터 각각 하루씩 삼일간 세 도시를 전도하였다. 시장으로 나가고, 고등학교와 공단지역으로, 각 집을 방문하는 축호전도로, 병원으로, 그리고 허무주의에 젖어 있는 각 대학의 캠퍼스로 우리는 주께서 주신 생명구원의 복음에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갔다. 거리를 지날 때마다 지주색 조끼를 입은 우리에게 금급증을 가지고 우리의 전단지들을 받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와 이라노' 하며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다.

처음이어서 일정에 무리도 있었고 300명 가량을 수용하지 못하는 숙소로 고생도 많이 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불평보다는 이렇게 나를 성장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오히려 자발적인 모습으로 임하였다. 하루씩 전도를 마친 후 오후에는 각 지역의 교회에서 전도집회를 가졌다. 그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도 왔지만 거리에서 만나 참석하신 아저씨, 중학생 어린 꼬마들은 언니 오빠의 손을 붙잡고 따라 왔고 시장에서 만난 아저씨는 우리를 격려하고 참 귀한 일을 한다고 그 일에 기도로 동참하겠다고 결심하기도 했다.

우리는 단 4박 5일만에 주령주령 열리는 복음의 열매를 보고자 하지는 않았다. 씨를 뿌리는 이도 하나님 아버지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결과는 온전히 그 분께 맡길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잠자고 있던 그 지역의 교회를 깨우고 젊은이들에게 다른 가

능성과 도전이 된다면 그리고 대학부에 이런 귀한 전도수련회가 자리잡게 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한 일학년 자매의 말이 떠오른다. 하나님은 그녀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런 고생도 감수할 수 있었다고……, 또 수련회 동안 편히 쉬면서 은혜받는 것이 아닌 이렇게 부딪치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껴서 감사하고 또 이들에게도 그녀와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 자매는 이처럼 간절히 기도했다고 한다.

젊은 날을 바랄만한 엄청난 도전이었다. 이처럼 아름다운 복음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귀히 쓰신다. 우리를 주의 도구로 놀랍게 쓰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감사, 찬양을 드린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 하옵시고 또 중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대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행 4:29-31)



◀ 소망부 수련회를 마치고 ▶

나의 자랑이 된 소망부

이형주
(권사, 소망부 교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라는 표어를 내걸고 95년 7월 3일과 4일 짧은 기간이지만 70세 이상으로 구성된 소망부 학생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끝을 맺었습니다.

소망부 지도이신 김찬곤 목사님과 이종대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소망부에 꼭 필요한 말씀을 들으며 은혜받았습니다. 강의와 특기자랑, 성경퀴즈대회 등등 순서를 진행하면서 '아 소망부 수준이 이 정도구나' 감탄했습니다. 80세 이상 되신 분들의 기억력이 어찌면 그렇게 좋으신지, 그리고 그렇게 건강하신지…….

폐회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을 모시고 잠깐 야외로 나가 양재동에 있는 윤봉길 의사당을 관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자연 속에서 교사들간에 교제를 가지며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이틀동안 긴장하며 피곤했던 것들이 봄날에 눈처럼 녹아내리고, 오직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저녁 때 집에서와서 생각하니 성경퀴즈

며 주방에서 수고한 봉사부, 사회를 맡아 수고하신 진행부 교사님들, 한분 한분 모두 다 최선을 다하여 소망부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시던 모습들이 필름처럼 너무도 생생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교사양성부를 수료하고 다른 부서들도 많이 있지만 소망부에서 봉사하게 된 것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주름진 모습 속에서 인생공부를 하며 그 모습이 얼마 후의 우리들의 모습일 것이라 생각하며 내 부모님들을 모시듯이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의 손을 잡아 드리면 그렇게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마음껏 배풀지 못하는 것이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비교도 할 수 없는 신앙의 선배님들의 교사가 되기에 너무 송구스럽기까지 할 정도로 부족한 점이 많으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상명령이고 사명이기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할 뿐입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신 분들 중에 아직 소망부에 나오시지 않는 70세 이상 부모

님이 계신 자녀분들은 다음 주일이라도 소망부에 등록시키신다면 부모님께도 큰 기쁨과 소망이 되시고 자녀들에게도 큰 효도가 될 것입니다.

소망부의 사정을 다는 열거하지 못하지만 우리 소망부에는 충현교회 소망부가 너무 좋아서 타교회에서 1부 예배를 마치고 소망부에 열심으로 나오시는 남자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과거에 평생토록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들,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사님들 세상말로 하면 대단한 수준급이고 영적으로 말하면 하늘에 면류관이 예비되신, 충현교회 중추역할을 하신 분들이시며 평생토록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신앙의 후배와 남북통일을 염원하시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시면서 축복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라고 믿어집니다.

이번 수련회 때에 강사님들이 강조하신, 어떠한 경우에

라도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물려 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 평생에 이루지 못하면 유언이라도 해서 신앙교육을 잘 시키라는 말씀은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유산을 맡았기에 오늘 내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후손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켜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 새 예루살렘 성 주 앞에 설 때 부끄러운 보고서가 아니라 땀땀하고 당당한 보고서를 제출합시다. 우리에게 건강주시고 사명주시어서 인생의 선배요 믿음의 선배들이신 소망부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은혜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최순복 피아노독주회

7월 13일(목)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대학부를 다닌 피아니스트 최순복 선생(사진)의 귀국 피아노독주회가 오는 7월 13일(목)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열린다.

최순복 선생은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워싱턴주립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워싱턴대학교에서 박사학위(M.D.A)를 받고 폴란드의 바르샤바에 있는 Chopin Music Academy에서 Chopin과 Karol Szymanowski에 대한 공부를 했다. 지난해부터 캐나다, 미국 등지에서 독주회를 가졌다.

지난달에 귀국한 최순복 선생은 중고등부와 대학부 시절에 반주를 하기도 했다. 최대원 장로, 남수현 권사의 딸이다.

직원모집

본 교회 사무국에서는 참된 청지기 소명의식을 가지고 함께 일할 가족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경비직 : 남 0명
- 미화직 : 남 0명
- (40~50세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성도)
- 영상직 : 남 0명(20~23세 비디오 카메라 촬영, 편집 경험자)
- 자격 및 제출서류 :

각항 공히 세례교인으로서 본 교회 직원 복무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1. 이력서 1부(사진첨부)
- 2. 교구목사 추천서(본교인) 1부
- 3. 당회장 추천서(타교인) 1부
- 제출처 : 충현교회 사무국 (☎ 552-8200, 교 402)

새가정부 여름수련회

7월 16, 17일 충현기도원에서

새가정부 여름수련회가 7월 16, 17일 충현기도원에서 열린다. '유업의 상을 받는 가정'(골 3:24)이란 주제하에 모이게 되는데 가정간의 친교, 토의, 성경공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모이게 된다. 강사는 새가정부 지도 박정규 목사. 또한 수련회 기간동안 바자회를 실시한다. 출품할 물건을 9일(오늘)과 16일(주일)제 걸쳐 회원당 1점 이상을 출품하여 교제하며 필요한 물건들을 나누게 된다.

장년2부 여름수련회 마쳐

장년2부는 지난 7월 3일과 4일 수원 합동신학교에서 여름수련회를 가졌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란 주제하에 모인 수련회에 2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강사인 심창섭 목사(충신신학대학원 교회사교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공동체'의 삶의 질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씀으로 참석자의 가슴을 뜨겁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교회공동체를 이루며 살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들이었다.

김분녀 권사 안내위원 유니폼 기증

김분녀 권사가 예배안내위원의 유니폼(여)을 16벌 기증했다. 김 권사는 매년 예배안내위원 유니폼을 기증해 왔다.

실업인전도회에서 구인 구직 알선

실업인전도회에서는 사람을 구하는 기업이나, 직장을 찾는 사람에게 사람과 직장을 알선해 주고 있다. 필요한 사람은 연락하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연락처는 전화(☎ 552-8200, 교환 448번)으로 하거나 교육관 112호로 직접 찾아오면 된다.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소서.
· 김창인 목사 : 능력으로 날마다 불들어 주시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 신성종 목사 : 7/10(월)-7/15(토) 중국 길림성기독교신학원 기공예배
2.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시작 10분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드림으로써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3. 초청전도집회와 예수사랑 큰잔치 때의 결신자들이 등록자가 되게 하시고 등록자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인도자와 양육위원들과 교구, 지역, 구역에서 잘 양육하게 축복해 주소서.
4.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시며, 환자들의 영육을 소성케 하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소서.
5. 하나님이 축복하사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통일한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과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세계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금년에도 풍년을 허락하소서.
6. 제2교육관 공사와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의 설립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길림성기독교신학원 기공식 참가단의 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의 건강을 축복하소서.
7. 충현의 교회학교 여름행사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시며 모든 학생들과 성도들이 은혜충만, 성령충만, 말씀충만한 삶이 되게 하소서.
8. 삼풍백화점 붕괴로 슬픔을 당한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이웃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함께 나누게 하시며, 다시는 이와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책임을 감당하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학교 교사단기수련회

7월 12일(수), 13일(목) 오후 7~9시

'교회학교 학생의 상담'이란 주제로 오는 7월 12일(수), 13일(목) 오후 7~9시에 교사단기수련회를 실시한다. 교육위원회는 교회학교 교사들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교회학교 교육에 필요한 상담원리를 배워 교회학교 교육에 활용할 목적으로 '교회학교 학생의 상담'이란 주제하에 교사단기수련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7월 12~13일, 오후 7~9시에 실시될 단기수련회는 첫째날 설교에 정광욱 목

사, 강의에 김희수 목사(주일학교 상담원리)와 둘째날은 현대교회의 임승원 목사가 '주일학교 상담 이론과 실제'라는 제목으로 두 시간을 강의하게 된다.

이번 기회를 통해 모든 교사들이 상담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실제적인 상담 사례들을 통해 학생들과 개인적인 상담이 활발히 일어나 학생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인도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1995년 여름 계절학교 개요

부서	주제	성구	장소	일자	강사(대내)
영아부	성령이 충만한 아기	행 2:33	영아부실	7. 18-20	정연희
유아부	우리집은 말씀을 사랑해요	요 15:9-12	교212호	7. 18-20	계신화
유치부	우리집은 말씀을 사랑해요	요 15:10	교205호	7. 18-20	김정자
초등1부	순종하는 어린이	렘 6:1	교307호	7. 18-20	손미희
초등2부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세요	렘 6:1	교314호	7. 18-20	송향자
초등3부	우리집은 하나님께 효도해요	마 15:4-6	교401, 2	7. 18-20	오인숙
초등4부	우리집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요 4:23	교414호	7. 18-20	윤인숙
초등5부	하나님과 섬기는 우리 집	수 24:15	교514호	7. 18-19	김필수
초등6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		충현기도원	7. 20-22	한용관
중등1부	좋은 열매를 맺는 자	마 7:18	충현기도원	7. 20-22	김희수
중등2부	친구를 알자	요일 3:16	충현기도원	7. 24-26	김광국
중등3부	성령충만한 학생이 되자	행 2:37-42	충현기도원	7. 24-26	이홍성
고등부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 11:28-30	충현기도원	8. 2-4	한근수
청년1부	이제는 우리가 책임질 때입니다	행 1:8	경남 김해	6. 27~7.1	장봉생
청년2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딤후 2:15	충현기도원	8. 14~16	김익환 김동석
장년1부	30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시 128:1	갈릴리홀	8. 21~22	김정우
장년2부	생활 속에 천국을 이루자	마 6:33	충현기도원	8. 14~15	이한수
장년3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	마 6:10	합동신학교	7. 3~4	윤영탁
소망부	생활의 자세가 문제다	롬 12:2	갈릴리홀	8.14~15	정규남 정경철
새가정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사 43:19	갈릴리홀	7.3~4	김찬곤 이종대
사랑부	유업의 상을 받는 가정	골 3:24	충현기도원	7.16~17	박정규
에바대(학)	효도하는 어린이	렘 6:1-3	사랑부실	6. 6	박경환
에바대(성)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시 119:105	충현기도원	7.16~18	이준우
영이교육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시 119:105	충현기도원	7.16~18	이준우
	Celebrating our Christian Independence		충현기도원	8.15~16	로봉린



농어촌목회자 초청세미나

'농어촌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성'이란 주제로 7월 4일(월)~7일(목)까지 충현기도원에서 농어촌목회자 초청세미나가 열렸다. 1000여명이 참석하여 농어촌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에 대한 강의 및 문임토의, 전교시간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통해 참석자들은 농어촌교회의 현실 가운데서 복음화를 위한 방향을 찾는 진지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큰 유익이 되었다. 참석자들은 강의, 무릎화 분만, 여나라 전교시간, 관공시간을 통해 참신한 다 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사진은 세미나에서 '농어촌 목회자의 사명과 영성훈련'에 대한 강의하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